

# 寒溪寺址 調査略報

文 明 大

1.

雪岳山 일대에는 수많은 佛蹟들이 있지만 新羅 때 부터의 古刹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新羅寺址 역시 거의 알려지지 않은 형편이다. 현재 新羅寺址의 확실한 예로 陳田寺址가 있지만, 이 寺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지금은 비록 폐사된지 오래지만 아직도 많은 遺跡, 遺物들이 남아있는 유명한 寺址이다. 진전사가 外雪岳의 名刹이었다면 內雪岳의 名刹로 버금갈만한 것은 아마도 寒溪寺가 아닌가 싶다. 寒溪寺 역시 지금은 廢寺되었지만 그 유적과 유물로 보아 신라 시대에는 陳田寺 못지않는 名刹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寒溪寺址는 인제군 원통의 장수대라는 內雪岳의 명승지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 절터는 이미 어느정도 알려져 있지만 그 중요성은 아직 인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① 그래서 이 寺址에 觀光호텔을 세우고자하는 계획이 구체화되어 금년중으로 착공된다고 한다.

물론 이는 10여년전부터 이 寺址를 조사하고자 하였지만 ② 차일피일하다가 최근 觀光호텔이 들어선다는 傳聞③에 놀라 8월 4~5일 이를 간급히 조사하게 되었다. 현재 寺址는 그대로 잘 남아있는 편인데 9세기 新羅時代로 추정되는 주춧돌, 塔, 佛像 등 많은 石造遺物들이 일부 파괴된 채로 散在하고 있었다.

이렇게 신라의 寺址에 신라의 遺物들이 잘 남아있는 예도 드물며, 더

구나 內雪岳쪽에서는 유일한 예이므로 이 寺址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寺址는 發掘整理되어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일인 것 같다.

2.

寒溪寺에 대한 記錄은 거의 없다. 아마도 꽤 오래전에 廢寺되었기 때문인 듯하다. 寺址에는 龜趺로 추정되는 遺物이 남아있으므로 만약 寺蹟碑라도 발견된다면 앞으로 이 절의 寺歷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몇 단편적인 기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첫째로 尋源寺事蹟記에는 雪岳山 尋源寺는 처음 尋源寺가 불타버린 후 한계사에서 아랫쪽으로 30리 떨어진 救時에 移建하고 절 이름을 雪興寺라 했으며……甲申年에 또 불이 나서 고개 넘어 60리 지점에 移建하고 절 이름을 深院이라 했고, 壬子年에 또 불이 나서 30리 아래에 이 전해서 龜岩寺라 했다. 癸亥년에 또 불이 나서 절을 이전했고 靈鷲이라 했으며, 또 불이 나서 계곡 윗쪽 20리 지점의 舊基에 절을 세워 百潭寺라 했으며 乙未에 또 절을 세우고 이름을 尋源寺라 했다. ④는 것이다. 즉 寒溪寺가 없어진 후 7차례나 계속 절을 移建했다는 것으로 그 연월은 바로 寒溪寺라는 말이다. 따라서 寒溪寺는 內雪岳일대에서는 寺院의 始祖적인 셈이다. 이 외에 百潭寺重建記나 百潭寺建築上樑文 등에도 이와 유사한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寒溪寺의 寺歷이 일대에서는 가장 오래고 그 지위가 가장 수승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는 자료들이다.

이것은 현재 남아있는 遺物이나 寺址의 규모로 보아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遺物로 본다면 9세기 후기에 세워진 寺刹임이 분명하며 아마도 이 절이 廢寺된 것은 고려말이나 朝鮮初가 아닌가 싶다. 그것은 東國輿地勝覽에 아무런 기록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雪岳山



圖 1. 寒溪寺址 三屬石塔



圖 2. 佛像台座

곧짜기의 寺刹까지 동국여지승람에 완벽하게 기록하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거대한 寺址 규모로 보아 만약 당시까지 있었다면 그 이름만이라도 기재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寺刹은 화재를 만나 없어졌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명성 때문에 그 후 이 일대에 사찰이 세워지면 모두 그 연원을 寒溪寺에다 붙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3.

현재 寒溪寺址는 원통에서 오색약수터로 넘어가는 중간지점인 장수대라는 명승지에 있는데 큰 길 북쪽의 산 아래 넓은 대지가 모두 寺址이다. 山地伽藍의 일반형인 階段式 배치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寺址는 현재 3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奇岩으로 된 峯을 뒤로한 正南向한 寺址이다. 각단은 東西로 길고, 南北으로 짧은 長方形의 平面인데

이들 段은 石築으로 쌓여 있다. 각 平面에는 많은 주춧돌(柱礎石)들이 建物址대로 거의 남아있는 것 같지만 필자가 조사할 때는 수풀 때문에 완전히 밝힐 수 없었다.

3단 가운데 上段이 아마도 이 寺址의 중심부를 이루는 것 같다. 이 段에는 특히 많은 遺構가 남아있고 잘 治石된 주춧돌, 문방석 기타 建物長台石들이 많이 散在해 있기도 하다. 이 治石된 遺構들은 모두 新羅下代의 것으로 추정되므로 新羅 당시의 初創 建物址로 보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 건물지는 중심부에 石佛坐像, 佛台座등이 파헤쳐진 채로지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金堂址였음이 분명한 것 같다.

寺址의 전체 규모와 建物址의 配置 같은 것은 정확한 實測이나 나아가가 發掘에 의하여 밝혀지겠지만 현 상태

로 보아도 山地伽藍치고 대단한 규모의 寺刹이었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현재 寺址에 남아있는 遺物은 모두 石造들인데, 그基의 石塔과 佛像 몇구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며, 이들은 모두 9세기 후기의 전형적인 우수한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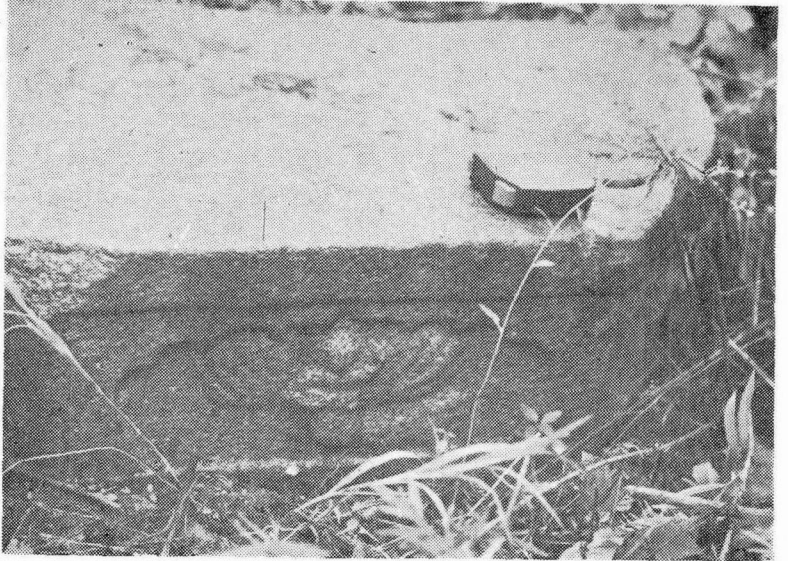


圖 3. 가릉빈가紋 下台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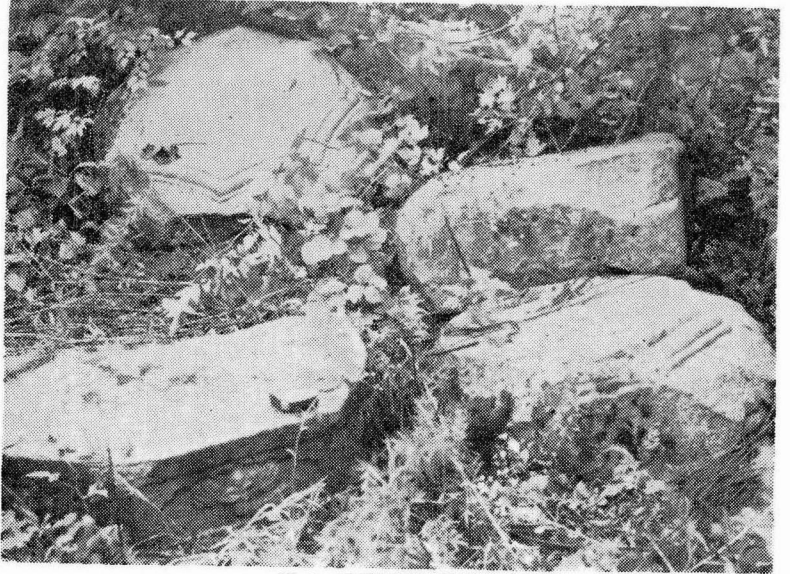


圖 4. 寒溪寺址 銘瓦

가, 石塔

石塔은 현재 2기가 보이는데 1기는 현 장수대산장 뜰에 옮겨 놓았고, 1기는 金堂址 서북쪽 앞은 봉우리 정상부에 옮겨져 있다.

1. 장수대 휴게소 三層石塔

金堂址에서 옮겨왔다고 전하는데 현재 三層基壇만 제외하고는 완전히復原된 것이다. 2층기단도 面石 1面과 甲石만 보이지 않을뿐 3面의 面石은 바로 옆에 옮겨놓았기 때문에 없는 일부 部材만 찾으면 相輸部를 제외한 완전한 三層石塔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基壇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下層基壇은 面石에 撐柱가 돌이며, 이 안에 眼象무늬가 3개씩 새겨져 있다. 이러한 안상무늬의 출현은 이塔이 장식화가 진행된 후에 제작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으며 아마도 이 안상무늬는 그 시초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다. 甲石은 두장(2枚)의 돌로 구성되어 있는데, 뒷부분에는 面石의 上層基壇面石은 현재 塔 옆에 따로 놓여있는데 1面만 보이지 않고 모두 남아있는 셈이다. 面石은 撐柱가 하나 뿐인데 전체적으로 석 약한 돌로 만들어졌다. 面石위가 되는 上層基壇甲石은 보이지 않는데 이 部材로 보이는 일부 部材가 原地에 놓여있는 것 같다.

一層塔身(屋身)은 높이가 56cm로 그 3층 탑신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3배~4배나 높은 편이어서 당대의 塔身비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들 1, 2, 3층 탑신은 모두 한 돌(一石)로 되었으며, 모두 隅柱만 있고 아무런 무늬도 없다.

1층 蓋石은 우개석 받침이 5단이며 2층 역시 마찬가지지만 3층 우개석은 4단 받침이어서 탑신석의 체감을과 더불어 9세기 후기의 石塔樣式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石塔樣式은 9세기 후기의 심약해지고 장식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이 石塔은 浮彫像이 없는 단순 소박하면서도 심약한 당대 석탑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現總高는 316cm이지만 上層基壇甲石을 계산한다면 아마도 330cm(相輪部 除外)쯤 될 것이다.

ㄴ、西北峰石塔

寺址西北峰 정상에 앞의 석탑과 비슷한 石塔部材가 흩어져 있다. 현재 塔屋蓋石、塔身、基壇部등이 거의 完全하게 남아있는 것 같다. 復原하면 앞 石塔과 비슷한 三層石塔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9세기경부터 나타나던 鎮山裨補思想에 의한 石塔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나、佛像

上段中心部에 많은 石材들이 흩어져 있는데, 대부분 台座와 光背部材들이고, 이 주위에는 주춧돌과 기타 建物石材들이 있다. 여기는 구덩이가 파여졌고, 石材들이 흩어져 있으며, 어떤 것은 인위적으로 깨어져 있어 아마도 돌꾼들이 보물을 캐고자 마구 파헤쳐 이렇게 파괴된 것 같다.

ㄱ、第一佛像

㉠ 石佛坐像

목이 없어지고 마멸이 심한 石佛坐像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本尊佛인 것 같다. 마멸이 너무 심하여 세부형태는 불확실하지만 9세기의 佛像樣式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現高 90cm

㉡ 台座

台座들은 많은 部材들이 남아 있는데 현재 台座1基만은 復原할 수 있다.

地台石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 地覆石 위에 놓였던 地台石(高 21.5cm)은 8자인데 각 면에는 가름반가가 浮彫로 새겨져 있다. 이 위에 놓이는 下台覆蓮花石은 蓮花紋들이 깨어졌지만 남아있는 무늬는 당대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中台받침으로 생각되는 8자 蓮花石이 있는데 역시 重葉으로 된 것이다. 中台石은 크게 깨졌는데 현재 세쪽이 보이는데 3면에 각각 浮彫像들이 새겨져 있다. 上台仰蓮石은 重瓣蓮花안에 화려한 꽃무늬가 새겨진 것이다.

이러한 台座는 9세기 후기에 가장 보편적이었던 8자 蓮花座인데 특히 浮石寺慈仁堂 中央佛像台座와 흡사한 것으로, 화려하고 장식적인 台座樣式을 대표하는 9세기 후기 佛像台座인 것이다.

㉢ 光背

光背는 산산이 깨어졌는데 현재 몇 쪽만 보일 뿐이지만 이 光背 역시 당대 광배의 화려하고 장식적인 것과 같다.

ㄴ、第二佛像

현재 뒷편 돌담속에 무너져 있는데 光背와 台座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들 光背와 台座는 第1像의 것보다도 작은 편인데, 光背에는 化佛과 불꽃무늬가 표현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돌담에 거의 붙어 있어 확실한 것은 완전하게 들어난 후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其他

이들 외에 주춧돌, 門枋石같은 建物關係石造物은 물론 石燈같은 여러 石造物이 있지만, 이 가운데 寒溪寺銘文기와 같은데 이는 평기와와 「寒溪寺」라는 銘文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이 寺址가 寒溪寺址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처럼 寒溪寺址는 新羅末 9세기 후기에 創建되어 朝鮮初까지 내려왔고, 이 절이 불타버린 후 內雪岳일대에서는 계속 百潭寺 등 많은 寺刹이 창건되었는데 모두 이 寒溪寺를 始祖로 삼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內雪岳의 最古의 名刹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山地伽藍이지만 광대한 규모를 갖고 있고, 여기에는 建物址들이 정연히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石塔, 石佛像같은 전형적인 9세기 新羅 石造 文化財들이 남아있어 이 지역 最大의 寺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寺址는 잘 정리하여 內雪岳의 文化的 名所로 영구히 保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註〉

- ① 文公部 文化財管理局 『韓國文化遺蹟總覽』 1977년 497
- ② 이 寺址에 대해서는 姜昔泉스님에게 의뢰를 했고 스님과는 이 일대를 조사하는 얘기가 여러번 있었지만 번번히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말았으며, 1977년에는 本校 기획과장이던 박수근씨의 제보로 씨와도 이 寺址 調査를 실시하고자 약속하였지만 필자의 태만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왔다.
- ③ 이 지역 軍法師로 활약하고 있는 이기선君에게 寒溪寺址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1차 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7월에 이 寺址를 조사한 결과를 필자에게 상세히 알려주었다. 따라서 이 寺址를 급히 조사하게 된 것은 이기선君의 勞苦때문이 있음을 밝혀둔다. 이번 조사에는 弘益大大學院 美術史學科, 홍성표, 최성은, 홍정수, 유마리등이 참가하였다.

④ 雪岳山尋源寺事蹟記는 乾隆48年 頓旭스님이 쓴 것인데 乾鳳寺及乾鳳寺末寺 史蹟(韓龍雲著)에 실려 있다.

(東國大學校 助教授)